

연예뉴스 HOT 5

심은진-전승빈 SNS 통해 혼인 사실 밝혀



심은진 전승빈

그들 베이비박스 출신 심은진(40)과 동료 연기자 전승빈(35)이 12일 혼인신고하며 부부가 됐다. 심은진은 이날 SNS를 통해 결혼반지를 낀 손가락 사진과 함께 “2021년 1월12일부터 전승빈씨와 서로의 배우자가 됐다”고 밝혔다. 심은진과 전승빈은 2019년 MBC 드라마 ‘나쁜사랑’에 함께 출연하며 사랑의 인연을 맺었다. 심은진은 “동료이자, 선배로 지내오다, 드라마가 끝날 무렵,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됐다”고 고백했다. 이어 “서로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만나다 오늘에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정식 예식을 올릴 예정이다.

후배 성추행 혐의 배진웅 “사실 아니다”

연기자 배진웅이 여자 연기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가운데 그의 법률대리인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12일 “A씨가 배진웅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A씨의 고소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과 관련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오히려 B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배진웅에 대한 A씨의 허위 주장과 근거 없는 사실 유포 등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세븐틴, 美 TV ‘켈리 클락슨 쇼’ 출연



세븐틴

그들 세븐틴이 미국의 간판 TV쇼 ‘켈리 클락슨 쇼’에 출연한다. 소속사 플레디스에 따르면 세븐틴은 14일(이하 한국시간) 방송하는 미국 NBC ‘켈리 클락슨 쇼’에서 지난해 발표한 일곱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레프트 앤 라이트’ 무대를 선보인다. ‘켈리 클락슨 쇼’에는 그동안 존 레전드, 두아 리파, 닉 조나스 등 해외 스타들이 잇따라 출연해왔다. 세븐틴은 이날 처음 출연한다. 이들은 앞서 7일 CBS 인기 토크쇼 ‘더 레이트 레이트 쇼 워드 제임스 코든 쇼’에도 출연해 눈도장을 찍기도 했다.

이경규 딸 예림, 축구선수 김영찬과 결혼 예정

개그맨 이경규의 딸인 연기자 이에림이 하반기 결혼한다. 이경규의 예비사위는 프로축구 부천FC 1995 소속 김영찬으로, 이에림과는 2017년부터 공개 열애 중이다. 이경규는 이날 매체 인터뷰를 통해 관련 사실을 공개했다. 이경규는 앞서 KBS Joy 예능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해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알렸다.

김세정, 엑소 세훈과 열애설 공개 부인



김세정

그들 구구단 출신 연기자 김세정이 엑소의 세훈과 휘말린 열애 의혹을 공개 부인했다. 김세정은 12일 SNS를 통해 세훈과는 “친하고 예능에서 케미도 있는 건 인정하지만, 사적으로 연락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5월 방송한 넷플릭스 예능콘텐트 ‘범인은 바로 너’에 함께 출연한 인연을 계기로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의혹에 휩싸여왔다. 김세정은 “정말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촬영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생각보다 많은 디엠(다이렉트 메시지)과 댓글, 그리고 비난의 글들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방송가는 지금 ‘박하선 전성시대’

‘머느라기’선 여성의 고민 대변 영화 ‘고백’선 아동 학대 고발 ‘동상이몽’선 남편과 일상 공개 ‘박하선의 씨네타운’ DJ 활동도

연기자 박하선(34)이 훨훨 나래를 펴고 있다. 다양한 무대에서 펼쳐내는 전방위 활동으로 시청자와 관객의 시선을 끌며 전성시대의 화려함을 만끽하고 있다. 웹드라마와 TV 예능프로그램, 라디오 영화음악 프로그램, 영화를 넘나드는 그는 소소하면서도 행복한 일상까지 공개하며 세상 화제의 중심에 올라섰다. 최근 박하선의 활약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무대는 카카오톡 웹드라마 ‘머느라기’이다. 지난해 11월 공개돼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드라마는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돼 누적 1000만 조회수를 넘어섰다. ‘시월드’라는 굴레 아닌 굴레 속에서 쉽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는 머느리의 고군분투기를 그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시대적 고민을 함께하는 연기자

이는 지난해 말 출연작인 tvN 드라마 ‘산후조리원’에 대한 시청자 관심의 연장선상에 있기도 하다. 산후조리원에 들어선 산모들의 이야기에서 그는 다둥이 엄마를 연기했다. 겉으로는 모자람이 없어 보이지만, 정작 공허한 결혼생활과 육아의 고단함을 감춘 캐릭터였다. 엄지원, 이루다 등 주역들과 함께 이 시대 여성의 모습을 공유하며 여성 시청자의 호응을 얻었다.

주체성과 오묘한 세상살이라는 여성의 고민을 ‘산후조리원’과 ‘머느라기’로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2017년 동료 류수영과 결혼해 딸을 둔 그는 “결혼이 왜 헨디캡이



1000만 조회수를 자랑하는 카카오톡 웹드라마 ‘머느라기’의 주연 박하선. 드라마와 영화, 라디오 등 다채로운 무대로 자신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사진제공 | 카카오톡

되어야하느냐”고 말할 정도로 기혼 여성 연기자로서 겪어야 했던 보이지 않는 차별과 힘겨움에 맞닥뜨린 경험도 지녔다. 그만큼 두 작품 속 캐릭터에 그 스스로 제대로 녹아들 수 있었다는 말이다. 박하선은 이 같은 시대적 공감을 2월 스크린으로 옮겨 놓는다.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을 다시 모으고 있는 아동학대에 관한 주제를 내건 영화 ‘고백’이다. 그는 학대의 피해를 입은 아이가 사라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의 주연으로 사회복지사 역을 연기한다. 아동학대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고발하며 관객과 현실에 관한 공감대를 기대하고 있다.

●남편 류수영과 일상도 공개

이와 함께 박하선은 지난해 11월부터 SBS 파워FM의 영화음악 전문프로그램 ‘박하선의 씨네타운’ DJ로도 활약 중이다. ‘웹툰’ ‘음치클리닉’ ‘청년경찰’ 등 다양한 영화에 출연해온 연기자로서 전문성을 살려 마이크 앞에서 청취자와 호흡하고 있다.

마침 박하선은 12일 오전 생방송에 남편 류수영과 함께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2013년 드라마 ‘트윈스’ 이후 처음으로 방송 무대에서 남편과 마주 앉은 박하선은 류수영이 준비한 간식을 자랑하며 뿌듯해 하는 등 알콩달콩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를 전했다. 전날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2’를 통해서도 남편과 가족에 관한 에피소드를 공개하기도 했다.

박하선은 이처럼 다채로운 무대와 활동을 통해 “연기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는 느낌이다”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이 기대되는 연기자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연의 끈에 이끌려...손현주-엄정화-조인성의 예능 나들이

손, 장성원 PD 러브콜에 ‘간이역’ 출연 엄, ‘온앤오프’ 출연 계기로 시즌2 MC 조, 절친 차태현과 ‘어쩌다 사장’ 호흡

이름 석 자만으로도 눈길을 끄는 베테랑 연기자들이 잇따라 예능프로그램에 도전한다. 손현주, 엄정화, 조인성이 각각 MBC ‘간이역’, tvN ‘온앤오프’, tvN ‘어쩌다 사장’을 준비 중이다. 출연작 홍보 등 일회성 게스트가 아니면 좀처럼 예능프로그램에 나서지 않는 이들이 전면에 나서 흥미롭다. 저마다 남다른 인연을 맺어온 연출자나 출연자들과 손잡고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기세다.

●손현주, ‘간이역’의 역장으로 정겨운 대화 손현주는 2월 방영을 목표로 ‘간이역’의



손현주 엄정화 조인성

촬영을 조만간 시작한다. 예능프로그램 진행은 데뷔 30년 만에 처음이다. 절친한 연예인들을 초대해 대화를 나누는 토크쇼다. 전국 곳곳의 간이역을 무대 삼아 정겨움을 살린다. ‘역장’인 그를 중심으로 연기자 임지연과 방송인 김준현이 ‘역무원’으로 손님을 맞는다.

손현주는 영화프로듀서이기도 한 연출자 장성원 PD와 맺은 인연으로 고민 끝에 출연을 결심했다. 장 PD는 애초 영화의 소재로 구상한 기획을 “소통의 힘”을 프로그램에 녹인다. 장 PD는 12일 “누구에게나 금방 다가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손현주의 소탈한 성격에 반해 오랫동안 기획했다”고 밝혔다.

●조인성, ‘절친’ 차태현과 예능 조인성은 차태현과 손잡았다. ‘어쩌다

사장’으로 1998년 데뷔 이후 처음으로 예능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한다. ‘1박2일’ ‘서울출발’ 등을 통해 연출자 류호진 PD와 인연을 쌓은 차태현이 섭외에 힘을 보태 새로운 조합이 탄생했다. 프로그램은 ‘어쩌다’ 가게를 차려 사장이 된 두 사람의 모습을 담는다. 또 다른 출연자나 판매 품목 등을 논의 중으로, 상반기 방영할 계획이다.

엄정화는 2월부터 tvN ‘온앤오프2’를 진행한다. 작년 8월 시즌1에 출연한 인연을 이어간다. 당시 꾸미지 않은 일상을 솔직하게 드러내 호응을 얻었다. 최근 MBC ‘놀면 뭐하니?’, tvN ‘놀라운 토요일’ 등에 일회성으로 출연했지만, 진행자 자리에 앉는 것은 오랜만이다. 작년 프로젝트 걸그룹 환불원정대와 새 음반 활동에 이어 다방면으로 뻗어가는 행보이기도 하다.

검증받은 작품은 괜찮겠지?...명량·범죄도시·마녀·해적 후속편 뜬다

“신인 발굴 등 영화계 활력 기대”

한국영화가 검증된 이야기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나선다. 1000만명부터 수백만 관객을 불러들이며 호평 받은 ‘중대박’ 흥행작이 후속편으로 새롭게 관객을 만난다. 1700만 관객을 모은 ‘명량’을 비롯해 ‘범죄도시’, ‘마녀’, ‘해적:파도로 간 산적’이 각각 속편을 선보인다.

‘명량’의 연출자 김한민 감독은 ‘한산:용의 출현’을 내놓는다. 2014년 1760만여 관객(이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동원한 역대 최고 흥행작 ‘명량’의 명성을 기



대하게 한다. ‘노랑:죽음의 바다’에 이르는 이순신 이야기 3부작의 두 번째 작품이다. 역시 2014년 866만 관객을 불러 모은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은 ‘해적:도깨비 깃발’로 탈바꿈하고, 2017년 ‘범죄도시’(688만명), 2018년 ‘마녀’(318만명) 등도 2편을 준비 중이다.

모두 일부 주연급 연기자를 교체하거나 과감하게 신인을 기용하는 등 신선한 진용을 갖춘다. ‘한산:용의 출현’은 ‘명량’의 최민식이 이어 박해일이 이순신 역으로 나선다. ‘해적:도깨비 깃발’은 전편의 손예진·김남길 등 대신 한효주·권상우·이광수가 최근 활영을 마쳤다. ‘범죄도시2’에서는 전편의 마동석·최귀화와 함께 손석구가 손잡는다. ‘마녀2’는 1400대 1 경쟁률의 오디션을 거쳐 신예 신시아를 주연으로 발탁했다. 전편의 김

다미에 이어 또 다른 기대를 모은다. 각 작품은 흥행 수치가 보여주듯 이미 많은 관객으로부터 재미와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그만큼 이야기의 힘을 검증 받은 셈이다. 어누와 함께 ‘해적:도깨비 깃발’을 공동제작하는 오스카10스튜디오의 장진승 대표는 12일 “흥행력을 입증한 이야기의 새로운 구성과 신인 발굴 등 속편으로 영화계에 활력의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